

# ‘걷기’에 관한 불교 문헌 조사\*

한수진\*\*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 1. ‘걷기’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 분석
  - 2. 용어별 사용 의미 분석
- IV. 결론

## ■ 한글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정신수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교 문헌에서 걷기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遊行·經行·行道·行脚·布行·萬行·巡禮·雲水 등의 용어 사용 빈도와 용례를 살펴보았다.

용어별 사용 빈도는 행도(5,560), 유행(3,139), 경행(2,843), 만행(2,474), 행각(611), 운수(445), 순례(80), 포행(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율부·아함부에서는 유행과 경행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교화나 세존 또는 특정 인물을 만나기 위해 지역과 지역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뜻할 때 유행을 사용하였다. 경행은 한정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가볍게 걸으며 행선하기 위해 걷는 것이었다. 순례는 부처님·보살·고승 등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계신 성지를 참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걷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행도·만행·운수·포행 등의 경우 대체로 삼장에서는 걷는 의미보다는 본래의 한자 해석에 따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에 만행·운수·포행 등은 한국불교 문헌에서는 구도하는 수행자의 걷기를 상징하였고, 행도는 중국 천태종의 문헌에서 다라니를 염송하며 걷는 방등삼매 수행법을 뜻할 때 걷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행각·운수 등은 선지식을 찾거나, 구도를 목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걷기였다.

이처럼 불교에서 걷는 행위는 공간의 이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불법의 전파와 구도를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이타를 위한 수행 방편으로써의 걷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걷기 프로그램의 이름짓기에서 유행은 ‘교화 걷기’, 행각·만행·운수 등은 ‘구도 걷기’, 행도는 ‘삼매 걷기’, 순례는 ‘참배 걷기’, 경행은 ‘수행 걷기’ 등으로 용어가 내포한 의미와 목적에 따른 걷기 형태로 구분하여 적합한 용어의 사용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 본 논문은 제12회 종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sujin143@naver.com

## I. 서론

2006년 ‘108산사순례’를 시작으로 한국불교에서 걷기를 통한 순례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sup>1)</sup> 2020년 조계종의 사부대중이 대거 참여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고창 선운사 본말사 걷기순례’ 등으로 이어졌다. 2021년 2월에 실시한 ‘서울 봉은사 상월 달빛걷기’ 등과 같은 ‘걷기순례’<sup>2)</sup>가 실천수행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걷기 순례는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걷기는 세존 재세 시부터 있었던 불교의 수행 방편 중 하나이며, 불교문화이다. 세존은 카필라바투스 성문을 나와 스스로 삭발한 이후 줄곧 자신의 두 발에 의지하여 구도와 전법에 힘썼다. 2500년 전에도 말, 가마, 배 등의 교통수단이 있어 지금과 같이 걷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존은 항상 걸어서 마을로 걸식하러 가고,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였다. 그리고 세존의 가르침과 수계를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걸어서 그에게 갔다. 인도로 구법 길을 떠난 법현·현장·혜초 등도 인도를 향해 갈 때는 험난한 사막지대를 걸어서 가는 길을 택했다. 따라서 ‘걷기’는 불교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는 참가자들이 수행 정진과 불교중흥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염원하며 팔공산 동화사를 출발하여 서울 봉은사까지 걸었다. 즉, 동참자들은 걸으면서 불교와 국가의 발전을 바라는 발원을 세우고, 참선이나 염불이 아닌 걷는 수행을 하였다. ‘선운사 본말사 걷기순례’에서는 선운사, 도솔암, 참당암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이 프로그램의 명칭에는 ‘걸어서 사찰 순례하기’, 또는 ‘걷는 사찰 순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봉은사 상월 달빛걷기’는 탄천주차장부터 수서교를 순환하는 걷기로, 이 걷기는 수행하기 위한 걷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걷기는 사찰 순례나 수행 방편의 하나이다. 그리고 ‘걷기’라는 용어만으로 일관하여 그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경전에서 ‘걷는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보(步)’자를 역어로 채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외에도 ‘걷는 행위’와 관련한 용어로 유행(遊行)·경행(徑行)·행도(行道)·순례(巡禮)·만행(萬行)·운수(雲水) 등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불교 문헌에서 사용하는 걷기와 관련한 용어에는 모두 ‘걷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용어적 표현들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교 문헌에 나타난 걷기와 관련한 역어의 사용 빈도와 용례를 조사하여, 불교

1) 김선근(2013), 243.

2)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4>(2021. 3. 1). ;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95>(2021. 3. 1). ;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92>(2021. 03. 01).

에서 ‘걷기’와 관련한 용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걷기’ 프로그램의 용어적 사용 타당성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한국불교의 ‘걷기수행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문학적 자료와 그에 적합한 용어 사용의 실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연구방법

한국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걷기 용어로는 유행·경행·행도·행각·포행·만행·순례·운수 등이 있다. 이들 용어의 특징은 불교 문헌으로 기초가 되는 『대장경』과 한국불교의 특색을 살펴 볼 수 있는 한국불교 문헌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전산화한 중화전자불전협회의 데이터베이스(<http://www.cbeta.org>)에서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대정신수대장경』(이하 『대정장』)과 한국불교문집을 중심으로 엮은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를 전자문서화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을 검색하여, 한국불교에서 사용하는 ‘걷기’에 관련한 용어와 각 용어에 담긴 의미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검색에서 사용한 주제어는 걷기와 관련한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遊行·經行·行道·行脚·布行·萬行·巡禮·雲水 등의 단어를 기초로 하여, 각 용어의 사용 빈도와 용어별 사용 예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용 빈도는 먼저, 문헌을 『대정장』과 『한불전』으로 크게 나누고, 『대정장』은 다시 『대정장』 데이터베이스(CBETA)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후 해당 용어를 검색하여 각 문헌에서 사용된 총횟수를 합산하고, <표>에서는 각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문헌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문헌 대비 빈도가 낮은 문헌은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사용 용례는 1차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문헌을 중심으로 용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외에 사용 빈도는 낮았지만 독특한 의미로 사용한 예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본문에서 직접인용 한 문헌만을 참고문헌란에 수록하였으며, <표>에서 나열한 문헌 정보는 그 내용과 인용 문헌을 명기하였으나 참고문헌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 III. 결과

### 1. ‘걷기’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 분석

#### 1) 유행(遊行)

유행을 주제로 검색하면, 『대정장』에서는 약 3,039회 정도가 검색되고, 『한불전』에서는 100회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사에서 검색한 견기와 관련한 용어 중에서 두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1>에서와 같다.

『대정장』에서는 율부(1,037), 아함부(341회), 화엄부(316), 경집부(273), 본연부(173회), 밀교부(167) 등의 순으로 유행의 사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행은 경·율·론 삼장 중에서도 율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율장에서는 『근본설일체유부율』(369), 『십송율』(222), 『사분율』(153) 순으로 많았다. 경장에서는 『잡아함경』(124), 『정법엄처경』(108), 『60 화엄경』(104), 논장에서는 『유가사지론』(31), 『비바사론』(20) 등의 순으로 유행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행은 계율·화엄사상과 관련하여 사용 빈도가 높아 이와 연관성이 있는 용어로 추측된다.

<표 1> ‘유행(遊行)’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阿含部 (341)	『長阿含經』(53), 『雜阿含經』(124), 『增壹阿含經』(16), 『中阿含經』(93), 『別譯雜阿含經』(17), 『起世經』(8), 외
本緣部 (173)	『生經』(8), 『普曜經』(6), 『佛本行集經』(50), 『佛所行讚』(7), 『撰集百緣經』(29), 『賢愚經』(12), 외
毘壽部 (69)	『阿毗達磨毘婆沙論』(11), 『鞞婆沙論』(20), 『尊婆須蜜菩薩所集論』(12), 『阿毗達磨順正理論』(5), 외
般若部 (30)	『大般若波羅蜜多經』(3), 『勝天王般若波羅蜜經』(5), 『大智度論』(11), 외
法華部 (92)	『妙法蓮華經』(6), 『正法華經』(10), 『妙法蓮華經玄義』(4), 『妙法蓮華經文句』(7), 『法華玄義』(11), 『摩訶止觀』(2), 『止觀輔行傳弘決』(8), 외
華嚴部 (316)	『大方廣佛華嚴經』 60권(104), 『大方廣佛華嚴經』 80권(69), 『度世品經』(7), 『大方廣佛華嚴經』40권(30), 『十住毘婆沙論』(7), 『華嚴經探玄記』(8), 『新華嚴經論』(27), 『佛說羅摩伽經』(10), 외
寶積部 (71)	『大寶積經』(44), 『文殊師利所說不思議佛境界經』(2), 『阿閼佛國經』(5), 외
涅槃部 (41)	『大般涅槃經』(14), 『佛說大般泥洹經』(7), 『大般涅槃經集解』(6), 외
大集部 (36)	『大方等大集經』(21), 『大哀經』(4), 외
經集部 (273)	『正法念處經』(108), 『修行道地經』(5), 『月燈三昧經』(15), 『佛說華手經』(5), 『入楞伽經』(2), 『金光明最勝王經』(3), 외
密教部 (167)	『蘇悉地羯羅經』(4), 『蘇悉地羯羅經』(9), 『大佛頂廣聚陀羅尼經』(18),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7), 『一字奇特佛頂經』(5), 『佛說灌頂經』(10), 『大法炬陀羅尼經』(4), 『大威德陀羅尼經』(5),
律部 (1037)	『彌沙塞部和醯五分律』(81), 『摩訶僧祇律』(69), 『四分律』(153), 『十誦律』(222), 『根本說一切有部律』(369), 『善見律毘婆娑』(15), 『毗尼母經』(11),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9), 『四分律行事鈔資持記』(17), 외
中觀部 (5)	『大乘廣百論釋論』(1), 『百論疏』(1), 외
瑜伽部 (66)	『瑜伽師地論』(31), 『大乘義章』(6), 『攝大乘論釋』(3), 외
論集部	『大乘集菩薩學論』(5), 『佛說立世阿毘曇論』(11), 『釋摩訶衍論』(8), 외

분류	경명
(38)	
淨土宗部 (18)	『無量壽經義疏』(1), 『阿彌陀經疏』(1), 『安樂集』(1), 『念佛三昧經論』(1), 외
禪宗部 (19)	『宗鏡錄』(14), 『大慧普覺禪師語錄』(1), 『虛堂和尚語錄』(1), 외
史傳部 (108)	『佛祖統紀』(11), 『釋迦譜』(5), 『阿育王傳』(8), 『付法藏因緣傳』(14), 『續高僧傳』(9), 『宋高僧傳』(7), 『景德傳燈錄』(6), 『大唐西域記』(3), 『南海寄歸內法傳』(5), 외
事彙部 (103)	『經律異相』(30), 『法苑珠林』(9), 『諸經要集』(16), 『衆經目錄』(10), 『開元釋教錄』(6), 『貞元新定釋教目錄』(6), 외
敦煌部 (39)	『律戒本疏』(7), 『瑜伽師地論記』(5), 외
한불전 (100)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13), 『解深密經疏』(5), 『瑜伽論記』(28), 『華嚴論節要』(2), 『金剛三昧經論』(2), 『釋迦如來行蹟頌』(3), 『通錄撮要』(2), 외

## 2) 경행(經行)

경행은 행도·유행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경행의 사용 빈도는 『대정장』 전체에서는 2,646회가 사용되었고, 『한불전』에서는 197회 정도로 조사되었다. 경행에서도 율부(676), 사전부(285), 아함부(244), 경집부(207), 본연부(155), 화엄부(144) 등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율부의 압도적인 사용 빈도가 높아 경행 역시 유행과 마찬가지로 계율과 관련한 걷기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유행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화엄부에서의 경행 사용 빈도는 절반 이상이나 적었으며, 『정법염처경』에서는 4회 정도만 사용되어, 유행과 비교하면 현저한 사용 빈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선종부, 사적부, 『한불전』 등과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행장과 어록에서 사용이 많은 것이 특이점으로 나타났다. 유행은 반야부 30회, 법화부 92회, 유가부 66회, 정토종부 18회 등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지만, 경행에서는 반야부 58회, 법화부 114회, 유가부 83회, 정토종부 86회인 것으로 나타나 반야, 법화, 유가, 정토종부에서 경행의 사용 빈도가 유행보다 많았다. 특히 정토종부에서의 경행 사용 빈도는 5.3배 정도 많아 정토종 문헌에서는 걷기의 용어로 경행이 주로 사용되었다.

경전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율장에서는 『십송률』(138), 『근본설일체유부율』(133), 『사분율』(95), 『마가승기율』(76) 순으로 많았으며, 경장에서는 『불본행집경』(57), 『잡아함경』(56), 『증일아함경』(52), 『대보적경』(48), 『중아함경』(44), 논장에서는 『유가사지론』(44), 『신화엄경론』(30), 그 외 『대당서역기』(68), 『법원주립』(49) 등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많았다.

<표 2> ‘경행(經行)’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阿含部 (244)	『長阿含經』(22), 『雜阿含經』(56), 『增壹阿含經』(52), 『中阿含經』(44), 『別譯雜阿含經』(22), 『分別功德論』(7), 외

분류	경명
本緣部 (155)	『普曜經』(8), 『佛本行集經』(57), 『眾許摩訶帝經』(11), 『雜寶藏經』(13), 『出曜經』(21), 『賢愚經』(6), 외
般若部 (58)	『大般若波羅蜜多經』(15), 『大明度經』(4), 『大智度論』(17), 『道行般若經』(2), 외
法華部 (114)	『妙法蓮華經』(13), 『正法華經』(20), 『添品妙法蓮華經』(15), 『妙法蓮華經玄義』(5), 『妙法蓮華經文句』(4), 『妙法蓮華經玄贊』(12), 『止觀輔行傳弘決』(9), 『國清百錄』(3), 『摩訶止觀』(2), 외
華嚴部 (144)	『大方廣佛華嚴經』 80권(24), 『度世品經』(2), 『大方廣佛華嚴經』 40권(16), 『十住毘婆沙論』(4), 『華嚴經探玄記』(6), 『大方廣佛華嚴經』 60권(11), 『新華嚴經論』(30), 외
寶積部 (77)	『大寶積經』(48), 『阿閼佛國經』(3), 『佛說大乘菩薩藏正法經』(4), 『大方廣三戒經』(5), 외
涅槃部 (27)	『大般涅槃經』(4), 『佛說大般泥洹經』(3), 『大般涅槃經集解』(1), 『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11), 외
大集部 (33)	『大方等大集經』(8), 『大哀經』(3), 『大方等大集經賢護分』(4), 『般舟三昧經』(5), 외
經集部 (207)	『賢劫經』(10), 『持心梵天所問經』(6), 『修行道地經』(5), 『月燈三昧經』(9), 『佛說觀佛三昧海經』(7), 『菩薩瓔珞經』(7), 『佛說華手經』(8), 『佛說道神足無極變化經』(5), 『正法念處經』(4), 『金光明最勝王經疏』(11), 『維摩詰所說經』(2), 외
密教部 (176)	『蘇悉地羯羅經』(3), 『蘇婆呼童子請問經』(5), 『佛說大乘莊嚴寶王經』(15),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8), 『大法炬陀羅尼經』(6), 『大威德陀羅尼經』(21), 『大方等陀羅尼經』(6), 외
律部 (676)	『彌沙塞部和醯五分律』(37), 『摩訶僧祇律』(76), 『四分律』(95), 『十誦律』(138), 『根本說一切有部律』(133), 『善見律毘婆娑』(10), 『毗尼母經』(49),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17), 『四分律行事鈔資持記』(9), 『鼻奈耶』(10), 『四分律比丘含注戒本』(11), 외
毘壽部 (46)	『阿毗達磨毘婆沙論』(11), 『阿毘曇毘婆沙論』(9), 『舍利弗阿毘曇論』(14), 『俱舍論疏』(5), 외
瑜伽部 (83)	『瑜伽師地論』(44), 『大乘義章』(1), 『瑜伽論記』(19), 『瑜伽師地論略纂』(13), 외
論集部 (9)	『大乘集菩薩學論』(1), 『那先比丘經』(2), 『入大乘論』(1), 외
淨土宗部 (86)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10),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8), 『樂邦文類』(13), 『廬山蓮宗寶鑑』(6), 『淨土五會念佛略法事儀讚』(6), 외
禪宗部 (54)	『汾陽無德禪師語錄』(6), 『宏智禪師廣錄』(6), 『宗鏡錄』(11), 『緇門警訓』(6), 외
史傳部 (285)	『佛祖統紀』(15), 『佛祖歷代通載』(9),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11), 『付法藏因緣傳』(7), 『續高僧傳』(20), 『宋高僧傳』(16), 『宋高僧傳』(10), 『續傳燈錄』(8), 『大唐西域記』(68), 『廣弘明集』(10), 『南海寄歸內法傳』(8), 외
事彙部 (121)	『經律異相』(17), 『法苑珠林』(49), 『諸經要集』(10), 『衆經目錄』(10), 『開元釋教錄』(5), 『貞元新定釋教目錄』(10), 외
敦煌部 (45)	『維摩經疏卷第三 第六』(6), 『淨土五會念佛誦經觀行儀卷中 下』(7), 『律戒本疏』(3), 『四部律并論要用抄』(4), 외
한불전 (197)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5), 『金剛般若波羅蜜經 五家解說誼』(5), 『懶翁和尚歌頌』(7), 『瑜伽論記』(34), 『緇門警訓註』(8), 『月峯集』(7),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14), 외

### 3) 행도(行道)

행도의 사용 빈도는 <표 3>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정장』에서 행도는 총 5,189건, 『한불전』에서는 371건이 검색되어 전체 용어 중 『대정장』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불전』에서는 만행(416)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로 나타났다. 문헌 분류별 사용 빈도는 비수부(738), 사전부(611), 경집부(531), 사취부(409), 율부(354) 등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행·경행 등이 율부·아함·화엄부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비수부의 문헌 중에서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384), 『대지도론』(104), 『유가론기』(87), 『아비달마비바사론』(60), 『유가사지론약찬』(53) 등의 순으로 아비달마와 유가사상 관련 문헌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다. 경장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80권(81), 『대반야바라밀다경』(80), 『인본욕생경』(80), 『출요경』(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율장에서는 『십송율』(58), 『오분율』(45), 『마하승기율』(41)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이 외에 『법원주립』(147), 『불조통기』(82), 『속고승전』(74), 『한불전』에서도 도륜의 『유가론기』(77) 등에서 행도의 사용률이 높았다.

정리하면, 행도는 이바달마와 유가사상의 논장, 중국과 한국불교의 찬술 문헌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와 아비달마 문헌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였다.

<표 3> ‘행도(行道)’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阿舍部 (305)	『長阿舍經』(9), 『長阿舍十報法經』(10), 『人本欲生經』(80), 『中阿舍經』(16), 『別譯雜阿舍經』(9), 『增壹阿舍經』(16), 『人本欲生經註』(90), 외
本緣部 (185)	『生經』(1), 『普曜經』(8), 『佛本行集經』(9), 『撰集百緣經』(10), 『賢愚經』(13), 『雜寶藏經』(9), 『法句經』(8), 『出曜經』(56), 외
毘壽部 (738)	『阿毘達磨集異門足論』(19), 『眾事分阿毘曇論』(22), 『阿毘曇八捷度論』(36), 『阿毘達磨大毘婆沙論』(384), 『阿毗達磨毘婆沙論』(60), 『尊婆須蜜菩薩所集論』(31), 『雜阿毘曇心論』(18), 『阿毘達磨俱舍論』(11), 『阿毘達磨俱舍釋論』(10), 『阿毘達磨順正理論』(26), 『阿毘達磨順正理論』(12), 『俱舍論記』(28), 『俱舍論疏』(26), 『俱舍論頌疏論本』(16), 외
般若部 (299)	『大般若波羅蜜多經』(80), 『放光般若經』(21), 『光讚經』(11), 『摩訶般若波羅蜜經』(14),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多經』(14), 『大智度論』(104), 『金剛仙論』(7), 외
法華部 (271)	『妙法蓮華經』(14), 『添品妙法蓮華經』(14), 『法華經義記』(13), 『妙法蓮華經玄義』(21), 『妙法蓮華經文句』(14), 『法華玄論』(14), 『妙法蓮華經玄贊』(10), 『摩訶止觀』(21), 『止觀輔行傳弘決』(27), 『觀心論疏』(10), 『國清百錄』(17), 『四明尊者教行錄』(11), 『方等三昧行法』(25), 『法華三昧懺儀』(11), 외
華嚴部 (264)	『大方廣佛華嚴經』 60권(17), 『大方廣佛華嚴經』 80권(81), 『漸備一切智德經』(17), 『度世品經』(11), 『十住經』(12), 『大方廣佛華嚴經』40권(8), 『十住毘婆沙論』(19), 『華嚴經探玄記』(17), 『大方廣佛華嚴經疏』(16),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22), 외
寶積部 (49)	『大寶積經』(27), 『文殊師利佛土嚴淨經』(2), 『阿閼佛國經』(1), 외
涅槃部 (86)	『大般涅槃經』 40권(11), 『大般涅槃經』 36권(11), 『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11), 『大般涅槃經集解』(21), 외
大集部	『大方等大集經』(26), 『大哀經』(8), 『自在王菩薩經』(7), 외

분류	경명
(53)	
經集部 (531)	『賢劫經』(20), 『佛說佛名經』(6), 『文殊師利問菩提經』(13), 『思益梵天所問經』(11), 『勝思惟梵天所問經』(9), 『佛說大安般守意經』(29), 『修行道地經』(95), 『道地經』(13), 『法觀經』(9), 『菩薩瓔珞經』(12), 『佛說華手經』(11), 『正法念處經』(28), 『佛說處處經』(9), 『佛說罵意經』(16), 『惟日雜難經』(11), 『三慧經』(14), 『注維摩詰經』(9), 『維摩經略疏』(9), 『維摩經義疏』(9), 외
密教部 (284)	『蘇悉地羯羅經』(4), 『蘇悉地羯羅經』(9), 『大佛頂廣聚陀羅尼經』(18),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7), 『一字奇特佛頂經』(5), 『佛說灌頂經』(10), 『大法炬陀羅尼經』(4), 『大威德陀羅尼經』(5),
律部 (354)	『彌沙塞部和醯五分律』(45), 『摩訶僧祇律』(41), 『四分律』(14), 『十誦律』(58), 『薩婆多毘尼毘婆沙』(19), 『根本說一切有部律』(15), 『善見律毘婆沙』(4), 『毗尼母經』(15), 『鼻奈耶』(14),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14),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22), 『釋門歸敬儀』(8), 『梵網經』(5), 『梵網經古述記』(5), 『慈悲道場懺法』(9), 외
中觀部 (23)	『中論』(3), 『中觀論疏』(10), 『百論疏』(3), 외
瑜伽部 (294)	『瑜伽師地論』(22), 『攝大乘論釋』(8), 『大乘阿毘達磨集論』(12), 『瑜伽論記』(87), 『瑜伽師地論略纂』(53), 『成唯識論述記』(19), 『成唯識論了義燈』(9), 『成唯識論演秘』(7), 『辯中邊論述記』(7), 『大乘義章』(25), 『大乘法苑義林章』(24), 외
論集部 (51)	『成實論』(25), 『大宗地玄文本論』(25), 『大乘集菩薩學論』(2), 『菩提行經』(2), 외
淨土宗部 (147)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13), 『安樂集』(17), 『樂邦文類』(13), 『廬山蓮宗寶鑑』(7), 『西方合論』(5), 『轉經行道願往生淨土法事讚』(19), 『集諸經禮懺儀』(8), 외
禪宗部 (102)	『少室六門』(6), 『宗鏡錄』(18), 『禪林寶訓』(9), 『緇門警訓』(9), 『勅修百丈清規』(9), 외
史傳部 (611)	『歷代三寶記』(21), 『佛祖統紀』(82), 『佛祖歷代通載』(15), 『釋氏稽古略』(24), 『阿育王傳』(4),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8), 『高僧傳』(24), 『續高僧傳』(74), 『宋高僧傳』(29), 『比丘尼傳』(7), 『神僧傳』(16), 『弘贊法華傳』(15), 『法華傳記』(7), 『往生集』(7), 『景德傳燈錄』(14), 『冥報記』(5), 『釋迦方志』(6), 『南嶽總勝集』(8), 『南嶽總勝集』(8), 『廣清涼傳』(5), 『弘明集』(7), 『廣弘明集』(57), 『集古今佛道論衡』(11), 『集神州三寶感通錄』(18), 『集沙門不應拜俗等事』(8), 『辯正論』(25), 『北山錄』(11), 외
事彙部 (409)	『經律異相』(26), 『法苑珠林』(147), 『諸經要集』(25), 『一切經音義』(12), 『翻譯名義集』(10), 『出三藏記集』(24), 『衆經目錄』(21), 『大唐內典錄』(15), 『大周刊定眾經目錄』(12), 『開元釋教錄』(40), 『貞元新定釋教目錄』(44), 외
敦煌部 (133)	『法華經疏』(4), 『律戒本疏』(9), 『毘尼心』(8), 『四部律并論要用抄』(8), 『瑜伽師地論分門記』(7), 『真言要決』(7), 외
한불전 (371)	『鏡虛集』(7),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16), 『梅月堂全集佛教關係詩文抄』(5), 『梵網經古述記』(10), 『瑜伽論記』(77), 『慈悲道場懺法集解』(8), 『緇門警訓註』(12), 『解深密經疏』(7), 외

#### 4) 행각(行脚)

행각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4>에 정리하였다. 행각은 『대정장』에서는 405회가 조사되었고, 『한불전』에서 사용된 횟수는 206회였다. 행각은 『대정장』 전체 405회 중에서 392회가 중국불교 문헌에서 사용되었고, 『한불전』에서도 206회가 사용되어 그 사용 빈도가 삼장(三藏)에서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 78회, 『경덕전등록』



67회, 『속전등록』48회, 『불과환오선사벽암록』 32회, 『선문염송집』 24회, 『운문광진선사광록』 22회 순으로 사용 횟수가 많았다. 이로 미루어 행각은 동아시아불교 중에서도 선종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각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행각승·행각인·행각사·행각고사 등의 복합어로도 사용되어 행각하는 주체와 목적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각 용어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행각승’은 48회, ‘행각인’ 33회, ‘행각고사’ 10회 등과 같이 행각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104회, 행위를 의미하는 ‘행각사’에서는 47회로 행각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의 사용이 행각하는 목적을 표현한 ‘행각사’보다는 높았다.

<표 5> ‘행각(行脚)’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阿舍部 (2)	『起世因本經』(1), 『增壹阿舍經』(1)
法華部 (1)	『最勝問菩薩十住除垢斷結經』(1)
律部 (5)	『彌沙塞部和醯五分律』(1), 『摩訶僧祇律』(2), 『十誦律』(1), 『善見律毘婆娑』(1)
論集部 (3)	『解脫道論』(3)
淨土宗部 (2)	『淨土或問』(1), 『西方合論』(1)
禪宗部 (245)	『撫州曹山元證禪師語錄』(6), 『雲門匡真禪師廣錄』(22), 『金陵清涼院文益禪師語錄』(8), 『汾陽無德禪師語錄』(11), 『法演禪師語錄』(5), 『明覺禪師語錄』(8), 『圓悟佛果禪師語錄』(11), 『圓悟佛果禪師語錄』(11), 『虛堂和尚語錄』(39), 『宏智禪師廣錄』(16), 『佛果圓悟禪師碧巖錄』(32),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16), 『禪林寶訓』(6), 『緇門警訓』(11), 외
史傳部 (142)	『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1), 『釋氏稽古略』(3), 『釋鑑稽古略續集』(3), 『宋高僧傳』(2), 『神僧傳』(1), 『大明高僧傳』(1) 『佛祖歷代通載』(14), 『景德傳燈錄』(67), 『續傳燈錄』(48), 『廣清涼傳』(1)
事彙部 (5)	『釋氏要覽』(1), 『一切經音義』(3), 『開元釋教錄』(1)
한불전 (206)	『大覺登階集』(4), 『白雲和尚語錄』(6),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5), 『法語』(6), 『三峰集』(3), 『禪門雪竇天童圓悟三家拈頌集』(8),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78), 『禪門拈頌集』(24), 『拈頌說話節錄』(8), 『清虛堂集』(7), 『緇門警訓註』(8), 『通錄撮要』(5), 『虛靜集』(3), 외

<표 6> '행각'과 관련한 복합어 및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行脚僧 (48)	대정장 (27)	『汾陽無德禪師語錄』(2), 『虛堂和尚語錄』(5), 『景德傳燈錄』(5), 『續傳燈錄』(8), 외
	한불전 (21)	『祖堂集』(3), 『清虛堂集』(3), 『禪門拈頌集』(4),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4), 『無竟集』(1), 『枕肱集』(1), 『栢巖集』(1), 『四溟堂大師集』(1), 『龍潭集』(1), 『虛靜集』(1), 『振虛集』(1) 외
行脚人 (33)	대정장 (21)	『黃龍慧南禪師語錄』(3), 『虛堂和尚語錄』(2), 『勅修百丈清規』(2), 『佛祖歷代通載』(4), 『景德傳燈錄』(4), 외
	한불전 (12)	『禪門拈頌集』(4), 『祖堂集』(5),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8), 『看話決疑論』(1), 『白雲和尚語錄』(1), 외
行脚事 (47)	대정장 (27)	『虛堂和尚語錄』(4), 『宏智禪師廣錄』(5), 『雲門匡真禪師廣錄』(2), 『佛祖歷代通載』(2), 『景德傳燈錄』(6),
	한불전 (20)	『禪門拈頌集』(4),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12), 『禪門雪竇天童圓悟三家拈頌集』(2), 『白雲和尚語錄』(2), 『通錄撮要』(1), 외
行脚高士 (10)	대정장 (6)	『潭州滄山靈祐禪師語錄』(1), 『明覺禪師語錄』(1), 『密菴和尚語錄』(2), 『虛堂和尚語錄』(1), 『禪林寶訓』(1)
	한불전 (4)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3), 『白雲和尚語錄』(1)

### 5) 포행(布行)

다음의 <표 6>은 포행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포행의 사용 빈도는 『대정장』에서는 총 33회로 나타났고, 『한불전』에서는 3회로 검색되어, 조사한 '걷기'와 관련하여 사용한 용어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용어였다. 『대정장』에서는 화엄부와 밀교부에서 각각 6회 정도 사용되어, 포행은 대승불교를 내에서도 화엄사상과 밀교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였다.

<표 7> '포행(布行)'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阿含部 (1)	『賴吒和羅經』(1)
本緣部 (4)	『六度集經』(3), 『生經』(1)
華嚴部 (6)	『漸備一切智德經』(1), 『大方廣佛華嚴經』 40권(2), 『大方廣佛華嚴經疏』(2),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1)
寶積部 (1)	『大寶積經』(1)
涅槃部 (1)	『大方等無想經』(1)
大集部 (1)	『阿差末菩薩經』(1)
經集部 (2)	『佛說阿鳩留經』(1), 『菩薩瓔珞經』(1)
密教部	『蕤呬耶經』(1), 『守護國界主陀羅尼經』(1), 『一切如來正法秘密篋印心陀羅尼經』

분류	경명
(6)	『(1), 『佛說聖觀自在菩薩不空王祕密心陀羅尼經』(1), 『俱力迦羅龍王儀軌』(1), 『佛說灌頂經』(1)
毘壽部 (4)	『尊婆須蜜菩薩所集論』(4)
史傳部 (4)	『釋氏稽古略』(1), 『續高僧傳』(1), 『宋高僧傳』(1), 『神僧傳』(1),
事彙部 (3)	『法苑珠林』(1), 『諸經要集』(2)
한불전 (3)	『東師列傳』(1), 『無量壽經義疏』(1), 『梵海禪師詩集』(1)

### 6) 만행(萬行)

<표 7>에서와 같이 『대정장』에서 조사된 만행의 사용 빈도는 총 2,058회였으며, 『한불전』에서는 416회로 조사되어, 행도·유행·경행 다음으로 ‘걷기’와 관련한 용어 중에서 사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만행은 『한불전』에서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걷기 용어였다.

『대정장』 문헌 중에서도 화엄부 537회, 선종부 222회, 돈황부 169회, 밀교부 156회, 경집부 144회, 반야부 120회, 사전부 115회 등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게 나타났다. 한편, 만행은 율부 중에서는 대승계율과 관련한 문헌에서 사용되었으며, 아함부와 같은 초기불교경전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만행은 대승불교 문헌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한편, 문헌류 중에서는 대부분이 주석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화엄경론』(227), 『종경록』(121), 『대방광불화엄경소』(120),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96), 『대반열반경집해』(49), 『대비로차나성불경소』(46) 등의 순으로 사용 횟수가 많았다. 『한불전』에서도 『화엄론 절요』에서 29회로 조사되어, 화엄경의 주석서에서 만행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선종부에서는 『종경록』에서의 만행 사용 횟수는 121회로 『송고승전』 12회, 『경덕전등록』 16회, 『광홍명집』 17회와 비교하면 『종경록』에서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종경록』에서 유행 14회, 경행 11회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 8> ‘만행(萬行)’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本緣部 (16)	『大方便佛報恩經』(1), 『大乘本生心地觀經』(9), 『菩薩本生鬘論』(2), 『罽許摩訶帝經』(3), 『出曜經』(1)
般若部 (120)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7), 『金剛仙論』(13), 『金剛般若疏』(24), 『金剛經纂要刊定記』(17), 『金剛般若經疏論纂要』(4),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21), 외
華嚴部 (537)	『華嚴經探玄記』(22), 『大方廣佛華嚴經疏』(120),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6), 『大華嚴經略策』(7), 『新華嚴經論』(227), 『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30), 외
寶積部 (13)	『大寶積經』(2), 『勝鬘寶窟』(11)

분류	경명
涅槃部 (72)	『涅槃論』(1), 『大般涅槃經集解』(49), 『大般涅槃經集解』(15), 『涅槃經遊意』(1), 『涅槃宗要』(4), 『佛遺教經論疏節要』(2)
大集部 (3)	『大方等大集經』(1), 『地藏菩薩本願經』(2)
經集部 (144)	『注維摩詰經』(16), 『維摩經玄疏』(6), 『維摩經略疏』(37), 『維摩經略疏垂裕記』(8), 『維摩經義疏』(12), 『說無垢稱經疏』(8), 『金光明經文句記』(12),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略疏』(12), 『注大乘入楞伽經』(4), 외
密教部 (156)	『陀羅尼集經』(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28), 『大毘盧遮那成佛經疏』(46), 『首楞嚴義疏注經』(20), 『請觀音經疏闡義鈔』(6), 『顯密圓通成佛心要集』(13), 외
律部 (44)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2), 『四分律行事鈔資持記』(12), 『天台菩薩戒疏』(4), 『梵網經菩薩戒本疏』(7), 『菩薩戒義疏』(3), 『梵網經古述記』(7), 『釋門歸敬儀』(5), 외
毘壽部 (15)	『阿毘達磨大毘婆沙論』(2), 『雜阿毘曇心論』(1), 『阿毘達磨俱舍論』(2), 『阿毘達磨順正理論』(2), 『阿毘達磨藏顯宗論』(2), 『俱舍論疏』(5), 『俱舍論頌疏論本』(1)
中觀部 (42)	『中觀論疏』(5), 『十二門論疏』(13), 『十二門論宗致義記』(9), 『百論疏』(2), 『三論玄義』(1), 『大乘玄論』(10), 『肇論新疏』(2)
瑜伽部 (30)	『攝大乘論』(1), 『瑜伽論記』(3), 『瑜伽師地論略纂』(4), 『成唯識論述記』(8), 『唯識二十論述記』(1), 『辯中邊論述記』(2), 『大乘法界無差別論疏』(5), 『勸發菩提心集』(1), 『能顯中邊慧日論』(2), 『大乘入道次第』(1)
論集部 (40)	『入大乘論』(1), 『四諦論』(1),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2), 『釋摩訶衍論』(10), 『密跡力士大權神王經偈頌』(2), 『大乘起信論義疏』(1), 『起信論疏』(6), 『大乘起信論義記』(2), 『大乘起信論義記別記』(1), 『起信論疏筆削記』(13),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1)
淨土宗部 (75)	『觀無量壽佛經疏』(4), 『安樂集』(7), 『釋淨土群疑論』(5), 『淨土論』(4), 『西方合論』(8), 『念佛三昧寶王論』(7), 『樂邦文類』(8), 『廬山蓮宗寶鑑』(12), 『西方合浮雲水中月論』(9), 외
禪宗部 (222)	『汾陽無德禪師語錄』(5), 『禪源諸詮集都序』(7), 『宗鏡錄』(121), 『萬善同歸集』(48), 『經門警訓』(6), 『勅修百丈清規』(7), 외
史傳部 (115)	『佛祖統紀』(9), 『佛祖歷代通載』(19), 『續高僧傳』(4), 『宋高僧傳』(12), 『景德傳燈錄』(16), 『廣弘明集』(17), 『天台九祖傳』(3), 『鐔津文集』(8), 외
事彙部 (42)	『法苑珠林』(4), 『諸經要集』(3), 『翻譯名義集』(5), 『出三藏記集』(6), 『開元釋教錄』(6), 『貞元新定釋教目錄』(7), 외
敦煌部 (169)	『法華義記卷第三』(12), 『法華經疏』(5), 『勝鬘經疏』(10), 『維摩義記』(9), 『淨名經集解關中疏』(28), 『淨名經關中釋抄』(19), 『大乘二十二問本』(6), 외
한불전 (416)	『鏡虛集』(9), 『起信論海東疏并刊行序』(5),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5), 『茶松詩稿』(5), 『大覺國師文集』(7),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說誼』(10),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12), 『無住警策』(5), 『梵網經古述記』(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1), 『釋華嚴教分記圓通鈔』(5),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13), 『禪源諸詮集都序科評』(11), 『禪源諸詮集都序分科』(9), 『拈頌說話節錄』(5), 『慈悲道場懺法集解』(7), 『作法龜鑑』(6), 『海鵬集』(12), 『華嚴論節要』(29), 외

## 7) 순례(巡禮)

<표 8>에서는 순례의 사용 빈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순례용어의 사용 빈도는 『대정장』에서 72회, 『한불전』에서 8회 정도로 검색되었다. 많은 사용 횟수를 보인 문헌류는 사전부(48)로 순례는 고승들의 행적과 관련한 걷기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순례(巡禮)’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經集部 (1)	『佛說十力經』(1)
密敎部 (1)	『西方陀羅尼藏中金剛族阿蜜哩多軍吒利法』(1)
律部 (5)	『根本說一切有部律』(4), 『根本薩婆多部律攝』(1)
淨土宗部 (4)	『樂邦文類』(1), 『龍舒增廣淨土文』(2), 『廬山蓮宗寶鑑』(1)
禪宗部 (3)	『虛堂和尚語錄』(3)
史傳部 (48)	『宋高僧傳』(7), 『景德傳燈錄』(3), 『廣清涼傳』(13),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2), 외
事彙部 (8)	『一切經音義』(1), 『大唐貞元續開元釋敎錄』(1), 『貞元新定釋敎目錄』(3), 『入唐新求聖敎目錄』(1), 『新書寫請來法門等目錄』(1), 『東域傳燈目錄』(1)
한불전 (8)	『鏡巖集』(1), 『勸念要錄』(1), 『東師列傳』(1), 『釋苑詞林』(1), 『念佛普勸文』(1), 『淨土寶書』(1), 『通錄撮要』(1), 『海東高僧傳』(1)

### 8) 운수(雲水)

운수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운수는 『대정장』에서는 132회, 『한불전』에서는 313회로 나타났다. 운수 역시 삼장보다는 중국과 한국불교 문헌류에 사용 횟수가 많았으며, 중국보다는 한국불교 문헌에 많은 검색 횟수를 보여 운수는 한국불교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운수와 관련한 용어로는 운수납자(雲水衲子), 운수단(雲水壇), 운수단작법(雲水壇作法), 운수단의문(雲水壇儀文), 운수단문(雲水壇文), 운수단가사(雲水壇歌詞), 운수단가영(雲水壇歌詠), 운수문(雲水文), 운수집(雲水集), 운수제의(雲水齊儀), 운수예문(雲水禮文) 등으로 의례와 관련한 다양한 복합용어가 『한불전』에서 다수 조사되었다.

<표 9> ‘운수(雲水)’의 사용 빈도

(횟수)

분류	경명
本緣部 (1)	『佛所行讚』(1)
華嚴部 (3)	『大方廣佛華嚴經』 60권(2), 『大方廣總持寶光明經』(1)
寶積部 (1)	『大寶積經』(1)
涅槃部 (23)	『大方等無想經』(23)
淨土宗部 (3)	『樂邦文類』(1), 『轉經行道願往生淨土法事讚』(2)
禪宗部 (63)	『黃龍慧南禪師語錄』(2), 『楊岐方會和尚語錄』(2), 『圓悟佛果禪師語錄』(2), 『虛堂和尚語錄』(5), 『宏智禪師廣錄』(41),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3), 외
史傳部 (34)	『佛祖統紀』(3), 『宋高僧傳』(4), 『景德傳燈錄』(10), 『續傳燈錄』(6), 외
敦煌部 (2)	『勝鬘經疏』(2)
한불전 (313)	『茶松詩稿』(10), 『大覺登階集』(5), 『東師列傳』(5), 『梅月堂全集 佛教關係詩文抄』(9), 『無衣子詩集』(4), 『浮休堂大師集』(7), 『禪門雪竈天童圓悟三家拈頌集』(4),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19), 『雪竈雜著』(5), 『松桂大禪師文集』(4), 『蓮潭大師林下錄』(5), 『雲水壇歌詞』(88), 『月渚堂大師集』(6), 『仁嶽集』(4), 『靈月堂大師集』(6), 『天鏡集』(7), 『清虛堂集』(11), 『鞭羊堂集』(4), 『涵弘堂集』(7), 『虛靜集』(6), 외

## 2. 용어별 사용 의미 분석

### 1) 유행(遊行)

한역어 ‘유행’에 해당하는 팔리어는 짜리카(carika)이다. 짜리카는 ‘행하다’, 행동하다, ‘유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짜라티(carati)의 명사·형용사형으로, 짜라티의 어근 √car는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팔리문헌에서는 짜리카 뒤에 ‘나아가다’, ‘출발하다’ 등의 뜻을 가진 파카마티(pakkamati. Sk.prakramati), 또는 짜라티(carati) 등의 동사형이 오는 경우도 많다.<sup>3)</sup> 예를 들면 carikaṃ caramano와 같이 ‘유행을 떠났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짜리카는 동류어원의 형태를 취한다.

문헌에 나타난 ‘유행’의 용례에 대해서는 <표 10>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유행은 1번 항목과 같이 세간을 다니는 걷기와 관련해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세존은 여러 많은 비구와 함께 곳곳을 유행하며 사람들을 제도하고 교화하였는데,<sup>4)</sup> 세존은 일주왕(日主王)인 자신이 여러 나라를 유행하면서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은 중생을 자민(慈愍)하게 여기기 때문<sup>5)</sup>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3) D.N. I, 82. ; Vin. III, 11.

4) 『長阿含經』 권1(T01, 7a).

5) 『佛本行集經』 권3(T03, 664c18-19). 我今亦欲遊行他國, 教化民人, 慈愍一切諸眾生故.

유행은 수행자 자신의 수행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교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세존은 유행의 목적이 교화에 있다고 해도 모든 수행 생활 동안 유행만을 그렇다고 정주 생활만을 권장하지 않았다.

때에 세존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랜 기간 유행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면, 항상 유행하는 사람은 법을 암송하여 가르치지 않고, 암송한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삼매를 얻어 마음이 평온해질 수도 없고, 얻은 삼매도 잃어버리고, 들은 법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일러 비구들이, ‘많은 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는 응당 알아야 하니, 많은 유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가지 공덕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면, 아직 얻지 못한 법을 얻고, 이미 얻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많이 들어 능히 지닐 수 있고, 능히 마음이 고요해져 삼매를 얻고, (얻은 삼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sup>6)</sup>

위에서와같이 세존은 장기간의 유행은 법과 삼매를 잃어버리게 되어 수행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유행에 할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세존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집과 재산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하게 되고, 속인처럼 재물을 모으게 되고, 친한 사람을 탐착하여 그 사람의 집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항상 속인의 집에 왕래하여 이와 같은 5가지의 법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sup>7)</sup>고 설하였다. 따라서 세존의 이 같은 가르침을 보면, 유행함에 있어서도 중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1-2, 5-8번에서 알 수 있듯이 율부에서의 유행은 세존과 비구들이 나라와 나라, 마을과 마을을 조금씩 이동하며 교화하는 걷기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5-7번에서와 같이 율장에서는 우기 3개월간의 안거와 관련한 유행의 금지 규정과 같은 계율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안거는 우기 동안 유행을 금지하고 한 곳에 정주하며 수행하는 기간이므로 비구의 유행은 안거 기간에는 금지되고, 안거가 끝난 이후부터 다음 안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행은 율부·아함·화엄부 문헌에서 다빈도로 사용한 용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부나 아함부에서의 유행은 중생 교화에 있었으며, 화엄부에서의 유행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9-10번 항목에서와같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살의 유행칠보(遊行七步)에 관한 것은 『화엄경』에서 대부분 사용된 용어로 나타났다. 『80 화엄경』에 따르면 보살마하살은 10가지 이유로 7걸음을 유행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 10가지는 보살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7보(七寶)를 나타내기 위해, 지신(地神)의 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뛰어난 삼계(三界)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큰 코끼리·큰 소·큰 사자의 가장 훌륭한 행을 나타내기 위해, 금강지(金剛

6) 『增壹阿含經』 권25(T02, 688c). 爾時, 世尊告諸比丘, 長遊行之人有五. 云何為五, 於是, 恒遊行人不誦法教, 所誦之教而忘失之, 不得定意以得三昧, 復忘失之, 聞法不能持. 是謂比丘多遊行人有此五難. 比丘當知, 不多遊行人有五功德. 云何為五, 未曾得法而得法, 已得不復忘失, 多聞能有所持, 能得定意以得三昧, 不復失之.

7) 『增壹阿含經』 권25(T02, 688c).

地)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중생에게 힘을 주기 위해, 칠각(七覺)의 보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일체 불법을 원만히 성취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치기 위해,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비길 바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유행칠보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sup>8)</sup> 여기서 유행칠보한 보살은 세존을 말하는 것으로 세존이 탄생 직후 7걸음 걸은 것을 가리킨다.<sup>9)</sup> 즉, 세존의 탄생은 중생 교화에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세간을 걸어 다니며 실천한 것을 상징한 것으로 풀이된다.

15-19번 항목 등의 중국불교의 문집류에서 유행은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 방편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보인다. 『속고승전』에 따르면, 중국 수나라 시대에 석현경(釋玄鏡)은 공관사(空觀寺)에 주석하면서 한적하게 유행하는 무위승(無爲僧)이었다.<sup>10)</sup> 석현경은 주거 사찰을 기점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사찰로 돌아오는 유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의 유행은 자신의 수행을 위한 구도(求道)의 걷기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나라의 석보원은 장안에 와서 유행하였는데,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두타행을 하는 두타행자였다. 그는 걸식하기 위해 마을에 들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을 숲과 모지 주변에서 보냈다.<sup>11)</sup> 이러한 기록에서 석보원의 유행은 그가 세간의 교화를 위해 유행하였다기보다는 수도 과정에서 음식 취득을 목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행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한역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4번 항목과 같이 짐승이나 벌레가 주위를 다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삼장에서 유행은 수행자와 보살의 중생 교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중국불교에서의 유행은 수행자 자신을 위한 수행 방편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표 11> ‘유행(遊行)’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長阿含經』 권1·5, 『雜阿含經』 권23·42, 『賢愚經』 권7, 『佛說華手經』 권1·9, 『摩訶僧祇律』 권23·24·30, 『十誦律』 권5·12·14·16·24·25·28·34·44·56·61, 『大智度論』 권8·13·2, 『佛本行集經』 권3·39·44 등	세존이 여러 나라를 유행하며 교화함
2	『雜阿含經』 권11·15, 『長阿含經』 권13·14·15, 『中阿含經』 권6·2, 5·28, 『生經』 권4, 『四分律』 권6·13·15·21, 등	세존과 비구들 또는 여러 명의 비구들이 함께 세간을 유행함
3	『雜阿含經』 권10	찬타가 아난을 만나려고 코삼비국으로 유행하며 감

8) 『大方廣佛華嚴經』 권43((CBETA 2019.Q3, T09, no. 278, p. 667b14-22).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事故, 遊行七步。何等為十。所謂現菩薩力故, 遊行七步。現七寶故, 遊行七步。滿地神願故, 遊行七步。現超出三界相故, 遊行七步。現大象王、牛王、師子王最勝行故, 遊行七步。現金剛地相故, 遊行七步。欲與眾生力故, 遊行七步。現七覺寶相故, 遊行七步。具足成就一切佛法, 不由他悟故, 遊行七步。欲自稱, 我於世最勝無倫匹故, 遊行七步。佛子, 是為菩薩摩訶薩十種事故, 遊行七步。教化眾生故, 作是示現。

9) 『大方廣佛華嚴經』 권41(T09, 659c).

10) 『續高僧傳』 권26(T50, 673c5-6).

11) 『續高僧傳』 권27(T50, 680b-c).



	문헌명	내용
4	『生經』 권4, 『摩訶僧祇律』 권7	물소들이 들관에서 풀을 먹으며 유행하거나, 원숭이들이 산림에서, 자라왕이 큰 바다를 유행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음.
5	『摩訶僧祇律』 권40, 『四分律』 권37	우기 중에는 안거를 하고 안거 중에는 유행을 금지함
6	『摩訶僧祇律』 권6, 『彌沙塞部和醯五分律』 권4	비구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세상을 유행함
7	『彌沙塞部和醯五分律』 권1	안거를 마치면 안거처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유행하게 함
8	『彌沙塞部和醯五分律』 23·15·16·17·18·20권, 『四分律』 1·5·13·31권, 『十誦律』 12·21·24·26·30권,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9·13·21·30·36권 등	세존과 비구의 점점유행(漸漸遊行)
9	『60大方廣佛華嚴經』 21·36·41·43·59권, 『80大方廣佛華嚴經』 31·79권,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 1권, 『大方廣佛華嚴經搜玄齊通智方軌』 4권, 『大慧普覺禪師語錄』 18권	보살의 유행칠보(遊行七步)
10	『80大方廣佛華嚴經』 46·47·48·49·50·51·55·56·58·64·67권	보살의 점점유행
11	『大般涅槃經』 권2	천신들이 세존 입멸 후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이 세존을 만나러 가기 위한 유행 처소가 없어져 자신들도 법을 들을 수가 없음을 한탄함
12	『長阿含經』 권4	세존은 자신이 입멸한 뒤 사람들이 세존이 태어나고, 득도하고, 법륜을 굴리고, 입멸한 곳을 유행하며 탑사(塔寺)를 예경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라 설함.
13	『摩訶僧祇律』 권8	바라내국에는 세존이 유행하던 연못이 있었음
14	『摩訶僧祇律』 권9	비구니가 유행하면서 여러 정사에 예경하고 다님
15	『續高僧傳』 권19	석도림은 벼룩이나 이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자신의 몸에서 유행하게 함
16	『續高僧傳』 권25	도집(道集)은 수양(壽陽)의 서산(西山)을 유행하다 강도들에게 잡혀 나무에 묶임
17	『續高僧傳』 권29	석명달(釋明達)은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자 유행하는 것에 힘씀
18	『續高僧傳』 권29	석혜달(釋慧達)은 고을을 유행하다 경관이 뛰어난 곳을 발견하면 절을 짓는 일에 힘씀.
19	『續高僧傳』 권19	법장은 황제에게 산에서 은둔하며 지내기를 청하는데 황제는 법장에게 5곳의 현(縣)을 유행하게 하지만 법장은 황제가 찾으면 숨어버리며 만나기를 거부함

## 2) 경행(經行)

한역어 경행은 팔리어 짚카마(caṅkama), 범어 짚끄라마(caṅkrama)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

는 ‘걸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 √kram에서 온 남성명사이다. PTS 사전에서는 짚카마를 ‘계단식 걷기[a terraced walk]’, ‘왔다갔다 하다[walking up and down]’라고 정의하였고, PTS 영문역본에서는 ‘왔다갔다 하다[pacing up and down]’<sup>12)</sup>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경행은 어느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걷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경행은 행선(行禪) 수행의 한 방법으로 약 50분간의 좌선 후 일어나 수행자들이 한 줄로 선방이나 마당을 걷는 것이다. 경행을 할 때는 걷고 있지만 걷고 있지 않은 듯 가볍게 공간을 돌며 근육을 이완하거나, 졸음을 쫓기 위한 걷기<sup>13)</sup>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행의 용어적 풀이는 경행이 좌선 수행의 일부이거나 졸음을 쫓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된다.

경행이란 용어가 포함된 문헌과 문헌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행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11>과 같이 경행 용어를 사용한 문헌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였다.

<표 11> ‘경행(經行)’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長阿含經』 9권, 『毗尼母經』 5·7권, 『摩訶僧祇律』 16권,	비구·비구니의 좌선과 경행 수행
2	『別譯雜阿含經』 2권, 『大智度論』 2권, 『經律異相』 13권, 『佛所行讚』 4권, 『雜譬喻經』 1권, 『正法華經』 2권, 『大寶積經』 32권	세존·아난이 초야에 좌선과 경행 함
3	『大比丘三千威儀』	경행할 때의 주의 사항
4	『決定藏論』, 『賢愚經』 12권, 『出曜經』 8·13권, 『大寶積經』 32권, 『佛說華手經』 5권	식후의 낮 동안에 경행
5	『觀察諸法行經』 1권, 『道行般若經』 10권, 『摩訶般若波羅蜜經』 27권, 『般舟三昧經』 1·3권, 『法觀經』 1권, 『菩薩瓔珞經』 7권	경행하며 수행정진 함
6	『觀自在菩薩如意輪瑜伽』 1권, 『觀自在如意輪菩薩瑜伽法要』 1권	불보살에게 예배한 후 뜻에 따라 경행하기를 권함
7	『雜阿含經』 10·23·29권, 『雜阿含經』 13권, 『佛本行集經』 42권, 『妙法蓮華經』 1·5권, 『大方廣佛華嚴經』 80권 중 17·24·41권, 40권 중 9·19·29권, 『大寶積經』 3·15·31·81권, 『彌沙塞部和醯五分律』 1·2·8·17·20·21·25·28권, 『摩訶僧祇律』 1·3·4·10·11·23·27외, 『四分律』 16·21·35 외, 『瑜伽師地論』 24·71·90·99권, 『瑜伽論記』 5·16·20권, 외	경행처(經行處), 경행림(經行林), 경행당(經行堂)
8	『大方等大集經』 45권, 『大方廣佛華嚴經』 60권중 48권, 『妙法蓮華經』 1권, 『添品妙法蓮華經』 1권, 『大寶積經』 30권, 『四童子三昧經』 3권, 『大方等大集經』 34·45권, 『說無垢稱經』 2권, 『妙法聖念處經』 1권	숲이나 나무 아래에서 경행 또는 경행처로 원림 보시
9	『大威德陀羅尼經』 12권	경행의 공덕에 대해 설함
10	『中阿含經』 6·8·20권 외, 『雜阿含經』 14·21·22권 외, 『別譯雜阿含經』 2·4·9권, 『出	세존·비구가 노지에서 경행

12) I. B. Horner(1996), 22. ; Vin. I. 15. Tena kho pana samayena bhagavā rattiyā paccūsasamayam paccuṭṭhāya ajjhokāse caṅkamati.

1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19), 244.

	문헌명	내용
	囉經』 3권, 『四分律』 33·50권, 『十誦律』 16·25·27권, 『毗尼母經』 6권	
11	『大般若波羅蜜多經』 9권	물 위에서 경행하는 것을 땅에서 경행하는 것과 같이 함
12	『大唐西域記』 2·4·5·6권	사불(四佛), 삼불(三佛) 또는 여래의 경행처를 봄

『대비구삼천위의』에 따르면 12가지의 두타행 중에서 여섯 번째는 낮과 밤 어느 때라도 자리에 눕지 않는 것이며, 만약 앉아 있을 때 졸음이 오면 일어나서 경행 해야 한다<sup>14)</sup>고 설하고 있다. 이 경에서는 경행 시간은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과 관계없이 졸음이 올 때 걷는 것이 경행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항목 2번과 4번 항목에 정리한 경전에서도 식후 졸음이 올 수 있는 오후 시간이나, 해가 저서 기온이 내려간 초저녁 시간에 경행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설명은 경행이 수행 중에 잠을 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7-10번에서 정리한 경전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아함경류, 율장, 『화엄경』, 『법화경』 등 초기와 대승불교 문헌에서는 경행을 위한 숲이나 건물 내지는 공간이 설해지고 있다. 앞서 경행의 사용 빈도 조사에서는 율장에서 경행의 사용이 많았는데, 이는 경행이 초기불교의 수행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수행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초기불교에서는 경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사원이나 주변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좌선 후 휴식을 위한 경행이었다기보다는 경행 그 자체로써 행선이었기 때문에 좌선처와 동일하게 경행만을 위한 경행처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방등대집경현호분』에 따르면 보살마하살이 4가지를 구축하게 행하면 현전삼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3개월 동안 대소변을 볼 때를 제외하고 경행하는 것이다.<sup>15)</sup> 『관찰제법행경』에서는 희왕보살마하살이 7일간의 단식 후 경행하기도 하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며 눕지도 자지도 않으며 법을 구하기도 하였고,<sup>16)</sup> 『도행반야경』에서는 살타과륜보살과 오백명의 여인들은 7년 동안 경행하며, 앉지도 눕지도 않았다<sup>17)</sup>고 설하고 있다. 이들 보살은 그들의 수행을 경행으로 완성하고자 하였으므로, 경행은 좌선 못지않게 중요한 수행법임을 알 수 있다.

『대법거다라니경』에서는 보살이 불세존을 위하여 산림에 경행처를 만들되 기와 조각과 돌을 치우고 부드러운 풀을 깔아서 보시하면 여래의 경행, 왕래 등을 볼 수 있다고 설한다.<sup>18)</sup> 『대보적경』에 따르면 염부제에 낙성이란 왕은 부처님께 동산을 보시하였는데, 이 동산에 있는 경행처에는 무량한 침복가나무가 있었다고 한다.<sup>19)</sup> 『법화경』에서는 미륵보살이 숲에서 경행하는 모습이 보인다.<sup>20)</sup> 세존과 비구가 노지에서 경행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1)</sup> 이 외에도 경행은 한적한 곳, 방·강당

14) 『大比丘三千威儀』 권2(T24, 919b). 六者晝夜不臥但坐, 睡來起經行.

15) 『大方等大集經賢護分』 권2(T13, 877b).

16) 『觀察諸法行經』 권1(T15, 727c).

17) 『道行般若經』 권10(T8, 474b).

18) 『大法炬陀羅尼經』 권3(T21, 672c).

19) 『大寶積經』 권30(T11, 166c).

20) 『妙法蓮華經』 권1(T9, 3b).

21) 『彌沙塞部和醯五分律』 권22(T22, 152a). ; 『中阿含經』 권8(T01, 471c).

앞, 탑·전각 아래에서 해야한다. 전각 위에 앉거나, 지팡이를 짚고 절 안을 다니거나, 누워서 경을 외우거나,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거나, 땅 밟는 소리가 나게 걸어서는 안 된다.<sup>22)</sup> 즉 경행은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장소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도록 대체로 조용한 숲속에서 경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경행은 숲이라고 하여도 경행처라고 지칭한 것으로 미루어 경행을 위한 공간적 제한은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행의 사용 빈도는 율장 다음으로 사전부에서 그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대당서역기』에서 68회나 조사되어 사전부의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번 항목에서와같이 여래의 경행처에 관해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현의 기록에 따르면 세존이 좌선하던 곳과 경행하던 곳에 탑이 세워져 있었다.<sup>23)</sup> 이것은 경행처가 수행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정도 오천축국에서 스님과 속인들이 경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의정은 직선으로 걸어갔다 돌아오는 것이 경행이며, 숙병(宿病)을 고치고, 소화를 도와주고, 오전과 오후에 경행한다<sup>24)</sup>고 설명하고 있다. 경행 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조심히 경행하며<sup>25)</sup> 수행하면, 항목 11번에서와 같이 땅에서 경행하듯 물 위에서도 경행이 가능한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행도(行道)

다음의 <표 12>와 같이 불교 문헌에 나타난 행도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행도(行道)’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長阿含經』 3·8·9·13·22권, 『般泥洹經』 1·2권, 『法華經』 1·2·3·4·5·6권, 『添品妙法蓮華經』 1-6권, 『經律異相』, 『鏡虛集』, 『鏡巖集』	‘도를 닦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2	『廣弘明集』 2권	태화 19년(492) 효문제는 백담사의 법사를 애도하기 위해 승재(僧齋)를 설치하고 7일 동안 행도하게 함
3	『廣弘明集』 8권	주(周)나라 때에 도가에서 불가의 승려들이 나태하다고 비난하자 무제는 백명의 승려들을 대궐로 초빙하여 7일 밤 동안 행도하게 함.
4	『廣弘明集』 17권	수(隨)나라 고조는 유계와 현계의 생명을 위해 7일간 행도하게 함
5	『十誦律』 3·42·56권	독경·좌선·행도를 좋아하거나 게을리하는 비구들에 관한 내용

22) 『大比丘三千威儀』 권1(T24, 915c).

23) 『高僧法顯傳』 (T51, 860b).

24) 『南海寄歸內法傳』 권3(T54, 221b). 五天之地, 道俗多作經行, 直去直來唯遵一路, 隨時適性勿居鬧處, 一則痊痾、二能銷食。 禺中日昃即行時也。

25) 『大方廣佛華嚴經』 권65(T10, 349c).

	문헌명	내용
6	『十誦律』 18권	가유타이는 세존이 행도하는 곳에서 같이 행도하기를 원함
7	『摩訶般若波羅蜜經』 14권, 『十誦律』 21·26권, 『十誦羯磨比丘要用』 1권, 『菩薩戒本疏』 2권, 『景德傳燈錄』 2권, 외	행도처(行道處)와 관련한 내용
8	『十住經』 1·2·3권, 『十住毘婆沙論』 8·12권, 『大方廣佛華嚴經』 6·8·23·26권, 『大智度論』 76·82·94·98권, 외	‘보살의 행한 바의 도[菩薩所行道]’
9	『阿毘達磨大毗婆沙論』 1·3·17·32·41권 외, 『阿毗達磨順正理論』 5·9·29 외, 『瑜伽師地論』 27·33·34·55·74권 외, 『解深密經疏』 5·8·10권, 『瑜伽論記』 5·7·14·17·18·19권 외, 『成唯識論學記』, 등	가행도(加行道)
10	『阿毘曇毘婆沙論』 3·15권	육계행도와 무색계행도
11	『阿毘曇毘婆沙論』 2·18·28·45권, 『雜阿毘曇心論』 4·8권,	4가지 행도[四行道], 16가지 행도[十六行道]
12	『出曜經』 5·15·16·29권,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1·2·3권, 『陀羅尼雜集』 1·2·3·10권, 『宋高僧傳』 6·15·24·30권, 『法苑珠林』 16·23·35·36권, 『諸經要集』 4·7권, 외	육시행도(六時行道)
13	『四經持驗紀』 3권	당나라 석해주가 육시에 행도할 때면 새와 짐승들이 따라 걸음
14	『四經持驗紀』 1권	후위(後魏) 시대에 안풍왕과 증산왕은 『화엄경』 100부를 사경하여 장경각과 칠보함에 넣은 뒤에 조용하고 맑은 날 밤에 목욕 재개하고 행도하자 신비한 광채가 뵈어져 나와 오색찬란하게 건물을 비춤
15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	자은사의 명혜는 매일 밤늦게까지 염송하고 경행하였는데 법사가 죽은 날 밤중에 불당을 돌며 행도함
16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27권	현경(顯慶)4년(659) 황제는 사리를 얻기 위해 사리탑에 가서 7일 동안 행도하며 기도하게 함
17	『廣弘明集』 17권	승교사(崇敎寺)에 불탑을 세우고 스님들에게 행도하게 하자 새가 날아와 대들보에 앉아 노래하였는데 경을 읽는 소리와도 같음
18	『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 1권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다라니를 쓰고, 행도·염송을 5억번을 하면 여래와 문수사리, 집금강이 허공에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준다고 설함.
19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경전을 강의하고 하루 두 번 행도 함
20	『妙法蓮華經玄義』 8권, 『妙法蓮華經文句』 5권, 『法華文句記』 5권, 『摩訶止觀』 7권, 『天台八教大意』 1권	37품이 도를 행하는 법[行道法]임을 설함
21	『法華三昧懺儀』 1권	예불 후 법화경을 모신 법좌 주위를 걸으며 삼보를 염송하는 행도법에 대해 설명
22	『方等三昧行法』 1권	방등삼매로써의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

	문헌명	내용
		도에 관한 설명

항목 1·6·8·9·10 등을 보면, 행도가 걷기와 관련한 용어 중에서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걷는다’는 의미로의 사용보다는 한자 그대로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정의 설명에 따르면, 행도는 경행과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몸을 움직여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수양하고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전에서 ‘오른쪽으로 세바퀴 돈다’라고 말한 것을 ‘부처님 주변을 행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의정의 설명에 따르면 행도는 경행과 같이 가볍게 걸으며 행선(行禪) 하는 것으로, 수행의 한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라 하겠다.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에서는 사리탑을 돌며 행도하고 염송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데, 14·16·17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불교에서는 불탑·불당·경전 주변을 걸으며 행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태지의는 다라니를 외우면서 걷는 반행반좌삼매 수행법인 방등삼매 참법에서 행도를 제시하고 있다. 『방등삼매행법』에서는 행도법을 상·중·하 3가지로 나누었다. 상품은 21번, 중품 16번, 하품 12번을 도는데 1번[周]이 120바퀴[匝]이며, 1번에 120번 다라니를 암송해야 한다.<sup>27)</sup> 이와 같이 행도로서의 걷기는 경행과 마찬가지로 걸으면서 하는 수행법이기는 하지만 다라니를 염송함으로써 신(身)과 구(口)가 결합한 형태의 걷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며 걷는 경행과는 구별된 걷기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중국불교의 문헌을 보면 행도는 2·3·4·15번과 같이 애도를 위한 목적으로 걷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불교에서는 행도가 수행 방편 이외에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한 신행의 한 수단으로도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도의 사용 빈도는 비수부(毘壽部)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사용 용례를 보면 항목 9번에서와 같이 가행도(加行道)에 관한 용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에 따르면, 도구유계(道俱有戒)는 얻었으나 정구유계(定俱有戒)는 얻지 못한 것은 성자(聖者)로서 욕업을 여의기 위하여 가행도와 9무간도와 8해탈을 일으키는 때이다.<sup>28)</sup> 따라서 비수부의 문헌에서의 행도는 경행과 같이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 아닌 수행의 단계를 의미할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4) 행각(行脚)

행각과 관련해서는 경장과 율장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행각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기보다는 문맥상 각각 한 단어로 분리하여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26) 『南海寄歸內法傳』 권3(T54, 221c . 225b). 經行乃是銷散之儀, 意在養身療病。 舊云行道、或曰經行, 則二事總包無分涇渭, 遂使調適之事久闕東川。(중략) 諸經應云旋右三匝, 若云佛邊行道者非也。

27) 『方等三昧行法』 1권(T46, 946a). 行道法者有其三種。 謂上中下。 良為行人強羸不等行有遲速。 上品行者二十一周。 中品行者十六周。 下品行者十二周。 一周有一百二十匝。 誦呪一百二十遍為一周。

28) 『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17(T27, 83b).

많았다. 다음의 <표 13>의 1번부터 5번까지 요약한 내용을 보면 각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여 ‘행’은 ‘걷는다’, ‘각’은 ‘다리’로 해석되어야만 그 문장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

<표 13> ‘행각(行脚)’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起世因本經』 7권	하늘의 모든 천신이 걸어도 발의 종적(蹤跡)이 없음을 설함
2 『增壹阿含經』 15권	세존이 물 위를 걸어도 발은 물에 담기지 않았음
3 『彌沙塞部和醯五分律』 21권	비구들이 눈 내리는 겨울에 걸어 발이 동상에 걸림
4 『摩訶僧祇律』 16권	비구가 밥을 먹는데 소나 낙타가 걸어가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뿌리고 가더라도 밥이 더럽지 않으면 먹을 수 있음
5 『解脫道論』 4권	행각하고 나면 자리에 앉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함
6 『廣清涼傳』 2권	손에 병(餅)을 들고 행각함
7 『撫州曹山元證禪師語錄』 1권, 『雲門匡真禪師廣錄』 2권	행각한 기간, 지역, 때 등에 대해 밝힘
8 『雲門匡真禪師廣錄』 1권	질신을 신고 행각함
9 『勅修百丈清規』 권6, 『白雲和尚語錄』	행각인의 자세
10 『景德傳燈錄』 권12·20·25	사찰을 방문한 행각승과의 문답
11 『景德傳燈錄』 권20, 『宋高僧傳』 권11	행각승의 숫자 암시
12 『無竟室中語錄』 권1, 『無竟集』 권1, 『枕肱集』, 『栢巖集』 권상, 『四溟堂大師集』, 『龍潭集』, 『虛靜集』, 『振虛集』, 『月峯集』	행각승에 관한 시(詩)

한편, 『해탈도론』에서는 ‘욕행인(欲行人)은 위의를 갖추고 행각처를 뛰어나게 하고, 진행인(瞋行人)은 앉고 눕는 것을 의지하고, 치행인(癡行人) 행처(行處)를 의지한다’<sup>29)</sup>라고 의지아사리가 비구에게 가르쳐야하는 행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행각처가 의미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경행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행각은 동아시아 불교 문헌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이들 문헌에서의 ‘행각’에 관한 사용례를 살펴보면, 6번에서 12번 항목에 걸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주(定住)하지 않고 유행(遊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여기서 행각은 인도불교에서 유행이 세간 중생의 교화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유행, 즉 행도는 수행자 자신의 수행을 위해 세간이나 산을 찾아 떠나는 걷기로 보인다.

그 예를 살펴보면, 도의(道義)선사는 산을 오르며 교망하였는데 손에는 병(餅)을 들고 행각하며 오대산 정상에 향하여 곳곳을 순례하였다<sup>30)</sup>고 한다. 여기서 ‘행각’은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산(曹山)은 행각할 때 영관(靈觀)선사에게 가서 문답하였고, 여기저기서 물려온 행각승들이 의현(義玄)선사에게 와서 문답하는 모습을 보인다.<sup>31)</sup> 따

29) 『解脫道論』 권3(T32, 410c-411a). 欲行人威儀多行脚處, 瞋行人依坐臥, 癡行人依行處.

30) 『廣清涼傳』 권2(T51, 1113b). 道義登嶺翹望, 挈餅行脚, 向中臺頂上, 處處巡禮.

31) 『景德傳燈錄』 권12(T51, 290a . 293a).

라서 행각은 자신이 탐구하는 의문에 답을 줄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구도(求道)의 걸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12번의 용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행각승이 중국과 한국불교 전통에서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불전』에 수록된 『백운화상어록』에서는 행각의 목적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행각인의 자세에 대해 설하고 있다.

행각인은 모름지기 가시나무 덩굴 숲에 앉아 큰 도량으로 삼고, 진흙과 물이 뒤섞인 곳을 바라보며 견디어 본래면목을 알아차려야 뛰어난 솜씨이다.<sup>32)</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행각은 수행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행의 시간이다.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원이 아닌 가시가 많은 숲속과 같은 거친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이르고 있다.

또한 동산양개(洞山良价)의 계송을 들어 행각의 참뜻을 밝히고 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찾지 말아야 하니	切忌從他覓
나의 본래면목과는 아득히 멀구나.	迢迢與我疎
나 이제 홀로 가리니	吾今獨自往
곳곳에서 그를 만나네.	處處得逢渠
그가 바로 나이니	渠今正是我
나는 이제 그가 아니네.	我今不是渠
응당 이렇게 만나니	應須怎麼會
비로소 여여하게 인연을 맺네.	方得契如如 <sup>33)</sup>

즉, 행각은 본래면목을 찾기 위한 걸기라고 할 수 있다.

## 5) 포행(布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행은 불교 문헌에서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는 아니다. ‘포행’은 『사미율의(沙彌律儀)』에 따라 수행자가 방선(放禪) 때에 주(呪)를 외운 후 포행하는 방선 의례 중의 하나로 함께 수행하는 도반과 대화를 하거나, 자유롭게 산책하는 것<sup>34)</sup>과 같은 걸기로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미율의』에서 제시한 주는 「입선당수중(入禪堂隨衆)」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미율의』에서는 선당에서 좌선 후 상(床)을 내려올 때 암송하는 주와 함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며, 신발을 끌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도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면 숲이나 물가에서 마음을 기울이며 담론하는 등<sup>35)</sup> 주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직접적으

32) 『白雲和尚語錄』(H01, 647b). 行脚人須是荊棘林內坐大道場, 向和泥合水處, 忍取本來面目, 是好手.

33) 『白雲和尚語錄』(H01, 648a).

3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19), 245.

35) 『受戒儀』, 20-21.



로 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사미율의』는 조선 중기에 찬술된 행동 규범집이고, 이처럼 좌선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포행은 조선 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좌선 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어로 보인다.

다음의 <표 14>에서 포행과 관련한 용례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행’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항목 1·2·4번의 용례를 보면 포행은 ‘퍼지거나 흩어져서 가는 것’이란 의미로 걸어가는 군집의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여러 명이 함께 걸어갈 때 한 줄로 줄지어 걷기보다는 횡(橫)으로 걷거나, 무리 지어 함께 걷는 것이 아닌 각자 흩어져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거나 목표물을 찾아내는 방식의 걷기이다. 이러한 방식의 걷기는 목표를 향해 걷는 군집행렬보다는 홀로 걷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14> ‘포행(布行)’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大方廣佛華嚴經』 40권 중 5·30권, 『大寶積經』 17권, 『守護國界主陀羅尼經』 1권	마니주와 같은 보배의 장엄을 포행렬(布行列)에 비유하여 묘사
2 『佛說阿鳩留經』 5권, 『法苑珠林』 54권, 『阿差末菩薩經』 3·6권	사냥꾼들이 흩어져[布行] 공작새 또는 앵무새를 찾아다님
3 『菩薩瓔珞經』 7권	포행바라밀을 설함
4 『生經』 5권	다른 비구를 폭행하고 가사와 발우를 빼앗아 달아난 비구를 대중이 함께 흩어져[布行] 찾음
5 『續高僧傳』 20권	당나라 홍복사 석혜빈의 성품이 순수하고 포행을 견하였음
6 『阿差末菩薩經』 7권	마왕파순이 부처님에게 항복하며 경전이 있는 곳을 따라서 포행하며 봉양하겠다고 다짐함
7 『尊婆須蜜菩薩所集論』 8·10권	세존이 목건련에게 점점포행(漸漸布行)을 설함
8 『一切如來正法祕密篋印心陀羅尼經』 1권	모든 불여래가 세존에게 정법협인심다라니를 잘 설하여 염부제에 널리 유포하고, 행하여 퍼지게 하였다고 칭송함
9 『佛說聖觀自在菩薩不空王祕密心陀羅尼經』 1권	매월 15일 관자재보살의 탱화를 그린 뒤에 법에 따라 차리고, 포행인은 탱상 앞에서 구마이로 만다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함.
10 『俱力迦羅龍王儀軌』 1권	사성명왕(四臂明王)이 용왕에게 힘을 쓰면 항상 포행인의 몸에 아(阿)자가 칼에 있는 아(a) 5글자를 품을 것이다.
11 『東師列傳』 5권, 『梵海禪師詩集』	길을 떠나는 모습에 비유
12 『神僧傳』 6권	영선사(英禪師)는 천하를 포행하며 큰 이익을 지음

조선 후기 범해각안(梵海覺岸)이 거사 이침산(李枕山)이 쌍계사로 들어갈 때 지어준 다음의 시구절에서 포행은 행각을 뜻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포행하는 짐보파리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 尺布行裝何所有

금강경 한 권이 우리 집안 가보이네.	金剛一卷自家珍
방공의 업적을 임금이 일찍이 얻었으니	龐公事業君曾得
이는 유마거사의 화신일지라. <sup>36)</sup>	應是維摩小化身

『동사열전』에서 각안의 기록을 보면 이침산은 출가하지 않고 재가자의 신분으로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침산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다녔으며, 그러한 이침산의 행동을 포행이라 말하고 있다.

정리하면, 포행은 좌선 중에 걷는 걷기와 행각과 같은 구도를 위한 걷기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만행(萬行)

만행에는 한자를 직역한 것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만행은 안거를 마친 뒤에 행하는 선승의 구도(求道) 행위로 운수행각(雲水行脚)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선승은 바람에 발우 하나만을 넣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안거 기간 동안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점검받는다. 이렇게 만행하는 선승을 만행승(萬行僧)이라고도 부른다.<sup>37)</sup> <표 15>에서는 만행에 대한 용어적 쓰임을 정리하였다.

<표 15> ‘만행(萬行)’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大乘本生心地觀經』 6권, 『大乘本生心地觀經』 1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6·27·35권, 『大方廣佛華嚴經疏』 7·16·34·48·60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권, 『瑜伽師地論略纂』 7·11권, 『摩訶止觀』 5권, 『念佛三昧寶王論』 1·3권, 『樂邦文類』 4권, 『西方合論』 1·2권, 『四分律行事鈔資持記』 1권, 『梵網經菩薩戒本疏』 1권, 『宗鏡錄』 7·13·19·32·34·36·81·86·94·100권,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1권, 『大覺國師文集』 13권, 『大覺國師文集』 하권, 외	육도만행(六度萬行)에 대해 실함
2	『大乘本生心地觀經』 25권, 『金剛仙論』 1·2·4·7·9·10권,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 1·2·3권, 『法華玄論』 2·4·8권, 『法華遊意』 1권, 『大方廣佛華嚴經疏』 25·34·58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4·21·26·35·90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9·34·48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2권, 『大方廣佛華嚴經疏』 1·6·9·15·20권,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31권, 『梵網經菩薩戒本疏』 1권, 『法界圖記叢龍錄』 1·2권, 『安樂集』 1·2권, 『宗鏡錄』 21·32·40·45·59·89·91권, 『無量壽經義記』 1권, 『觀世音菩薩妙應示現 濟衆甘露』 3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說誼』 권상, 『大覺國師文集』 3·13·16권, 『勸修定慧結社文』,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5·7·14·23권, 외	만행을 닦는 것에 [修萬行]에 대해 실함
3	『一字佛頂輪王經』 1·5권, 『五佛頂三昧陀羅尼經』 1·4권, 『金剛經纂要刊定記』 2·4권, 『華嚴經探玄記』 16·17권, 『華嚴經探玄記』 48·56권, 『華嚴經探玄記』 79·81권, 『華嚴經探玄記』 4·	보살의 만행[菩薩萬行]에 대해 실함

36) 『東師列傳』 권5(H258, 1064a).

37) 김미선(2014), 105-106.

문헌명	내용
40권, 『禪源諸詮集都序』 1·2권, 『宗鏡錄』 21·32·36·42·79·82권, 외	

만행과 관련한 용어 또는 구절로는 육도만행(六度萬行), 수만행(修萬行), 보살만행(菩薩萬行) 등이 조사되었다. ‘육도만행’의 경우는 『대정장』 내에서는 113회가 검색되었고, 『한불전』에서도 44회나 사용되었다. ‘수만행’은 『대정장』에서는 145회, 『한불전』에서는 75회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살만행’에 대해서는 『대정장』에서는 823회, 『한불전』에서는 22회가 조사되어 이 용어 사용에 있어 육도만행보다도 많은 사용 횟수를 보인다.

『대승보운경』에 따르면 보살마하살은 십법을 구족하여야 빠르게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이 열 가지를 일러 만행이라고 하고, 만행은 보시와 계품을 구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8)</sup> 또한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는 출가보살이 보리심을 내어 산림에 들어가 3가지의 좌련(座鍊)에 앉아 몸과 마음을 닦되 3대겁을 지나도록 만행을 닦으면 무상정등의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sup>39)</sup>고 설한다. 이와 같은 용례에서는 만행이 안거 후에 구도하기 위해 걷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온갖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 후기의 법종(法宗)의 시문집에 수록된 ‘만행행자에게 바치다[贈萬行行者]’라는 제목의 시를 살펴보면, 만행이 행각(行脚)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본시 마음에서 얻는 것이 도인데	道本心中得
많은 사람이 밖에서 찾네	人多向外尋
동자의 길로 가지 말고	莫行童子路
노호의 숲으로 돌아가 앉으라.	歸坐老胡林 <sup>40)</sup>

위의 시에서 ‘동자의 길’이란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노호의 숲’이란 보리달마를 일컫는 것으로, 달마의 숲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즉 선지식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곳에 머물며 선수행을 통해 본심을 참구하여 증득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만행에 ‘걷는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조선시대 한국불교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7) 순례(巡禮)

순례의 용어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표 16>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례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중국불교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삼장 중에서는 2-4번에서와 같

38) 『大乘寶雲經』 권6(T16, 276a). 善男子, 菩薩摩訶薩具足十法, 速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等為十。所謂萬行, 具如前說。夫萬行者布施具足, 戒品具足。

39) 『大乘本生心地觀經』 권5(T3, 316c). 善男子, 出家菩薩發菩提心入於山林, 坐三種座鍊磨身心, 經三大劫而修萬行, 證得無上正等菩提。

40) 『虛靜集』 권상(H196, 492c).

이 『근본설일체유부율』에서 나타난 순례는 불탑이나 지제(制底, caitya)에 배당(배당)을 순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도불교에서 수행자가 순례하는 목적은 불탑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16> ‘순례(巡禮)’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佛說十力經』 1권	역경승 법계(法界)가 4년간 인도를 순례하며 범어를 익힘
2 『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 10권	비구들이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제(制底)를 순례함
3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奈耶』 2권	불탑의 순례
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皮革事』 2권	비구가 여러 사원을 유행하면서, 탑이 있는 곳을 다니고, 성적(聖迹)을 순례함
5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奈耶』 5권	비사거비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불탑을 순례하고 다사 사원으로 돌아감.
6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3·4권, 『景德傳燈錄』 17권	인도에 가서 여러 곳을 다니며 성적을 순례함.
7 『鏡巖集』, 『淨土寶書』, 『宋高僧傳』 5권	우리나라의 오대산을 순례함
8 『念佛普勸文』 「京兆房翥勸他往生」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오대산을 순례하고 『금강경』을 외우기를 권함
9 『東師列傳』 「縞衣大士傳」, 『宋高僧傳』 11권, 『廣清涼傳』 1권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순례함
10 『宋高僧傳』 5·19권, 『景德傳燈錄』 17·27권, 『廣清涼傳』 2권	중국의 오대산을 유행하며 상서롭고 유번(愈繁)한 곳을 순례함
11 『宋高僧傳』 21권, 『淨土往生傳』 3권, 『廣清涼傳』 2권	여러 보살원(菩薩院)을 차례로 순례함
12 『宋高僧傳』 23권, 『廣清涼傳』 2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청량산(淸涼山)을 순례함
13 『景德傳燈錄』 4권, 『廣清涼傳』 2권	여러 곳을 순례함
14 『景德傳燈錄』 17권	팔탑(八塔)의 순례
15 『續傳燈錄』 36권	조탑(祖塔)을 순례함
16 『廣清涼傳』 3권	계산(屈山)을 순례함
17 『廣清涼傳』 2권	금강굴(金剛窟)을 순례함

중국불교 문헌에 따르면, 고승의 탑에 예배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하여 구법(求法) 시에 인도의 여러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가는 것이 곧 순례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한국불교에서는 사찰 및 오대산·금강산·청량산 등의 성스러운 산이 성지로 인식되어 이곳을 찾는 순례도 나타나고 있다. 순례의 대상이 인도불교에서는 세존의 사리를 모신 불탑과 이를 대신하는 지제를 방문하는 것이 순례였다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고승·사찰 이외에 산악승배를 위한 순례도 보이면서 순례의 대상이나 목적이 확장된 양상을 띠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8) 운수(雲水)

운수와 관련한 문헌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17>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체로 삼장에서의 운수는 1·2번 항목에서와같이 한자의 뜻 그대로 ‘구름과 물’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한국

문헌에서의 ‘운수’는 수행자를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17> ‘운수(雲水)’의 용례

	문헌명	내용
1	『大方廣佛華嚴經』 15권, 『大方廣總持寶光明經』 5권, 『佛所行讚』 2권, 『禪門拈頌集』 7·8권, 『祖堂集』 20권, 『伽山藁』 3권, 『括虛集』 1권, 『大覺登階集』 1·3권, 『浮休堂大師集』 1권	구름과 물
2	『大方廣總持寶光明經』 2권, 『大方廣總持寶光明經』 2권	여러 가지 대운수(大雲水)의 삼매를 설함
3	『禪門拈頌集』 11·15권, 『祖堂集』 9·12·20권, 『大覺登階集』 2권	운수승(雲水僧)
4	『奇巖集』 3권	운수남자를 대접하기 위해 운수당을 건립
5	『大覺登階集』 2권	운수승의 자세
6	『白雲和尚語錄』	자신이나 마음을 운수에 비유함

『동사열전』에 따르면 부용스님은 13세가 되던 해가 홀연히 집을 떠나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뒤따라오자 스님은 개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운수인(雲水人)이 되어 맹세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sup>41)</sup>라고 말한다. 또한, 설담(雪潭, 1769~1830)이 동강 김담(1678~?)에게 ‘저는 어렵사리 깊은 산속에 한 곳을 얻어 그곳에 거주하여서 우선 운수의 모양새는 갖추긴 하였으니, 비로소 불경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아둔한 것이 예전과 다름이 없어서 조금도 이해하는 것이 없습니다.’<sup>42)</sup>라고 말한다. 이로 미루어 운수는 집을 떠난 출가 수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의 원감(圓鑑, 1226~1293)가 지은 「감로원축법수소(甘露入院祝法壽疏)」에서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저는 성품이 쉬면서 한적하게 보내고 행동은 규칙을 그만두어, 단지 운수(雲水)의 형해가 되기에 뛰어난 뉘입니다. 어찌 총림의 수령이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sup>43)</sup>

이 글에서의 운수는 구름과 물과 같이 일정하게 어느 한 곳에 주석(住錫)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41) 『東師列傳』 권2(H10, 1012b). 我今永作雲水人, 矢不歸也.

42) 『雪潭集』 권하(H9, 733c).

43)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H89, 398a). 而予性便閑適行謝規, 只堪爲雲水形骸. 豈合作叢林首領.

#### IV. 결론

이상으로 불교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걷기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 빈도와 용례를 遊行, 經行, 行道, 行脚, 布行, 萬行, 巡禮, 雲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어별 사용 빈도는 행도, 유행, 경행, 만행, 행각, 운수, 순례, 포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행도·만행·운수 등의 경우에는 걷는다는 의미보다는 본래의 한자 해석에 따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화엄부에서는 만행의 사용이 다른 경전에서보다 많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온갖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걷는 행위에 관한 용어로 쓰이지는 않았다. 그에 반해, 만행은 조선 시대의 문헌에서 행각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한국불교에서 만행에 걷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행도는 중국 천태종의 문헌에서 주를 염송하며 걷는 방등삼매 수행법으로 많이 쓰였고, 삼장에서는 ‘도를 행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쓰는 역어였다. 운수 역시 삼장에서는 ‘구름과 물’을 뜻하는 표현이었으나, 한국불교에서 운수는 구도하는 수행자 또는 그러한 걷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였다.

행각·만행·운수 등의 용어는 동아시아 선종에서 수행자가 구도를 목적으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각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운수 역시 행각과 마찬가지로 구도를 목적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걸기로 일정한 주처를 두지 않고 다니는 수행자의 걸기였다. 포행도 한국불교 문헌에서 주로 사용한 구도를 위한 걸기였다.

율부와 아함부에서는 유행과 경행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교화를 위해서나 세존 또는 특정 인물을 만나기 위해 지역과 지역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뜻할 때는 ‘유행’을 사용하였다. 경행은 한정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가볍게 걸으며 행선하기 위해 걷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례는 부처님·보살·고승 등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계신 성지를 참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걸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불교에서 걷는다는 행위는 공간의 이동을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불법의 전파와 구도를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의 걸기는 자리와 이타를 위한 수행 방편으로써의 걸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행은 ‘교화 걸기’, 행각·만행·운수 등은 ‘구도 걸기’, 행도는 ‘삼매 걸기’, 순례는 ‘참배 걸기’, 경행은 ‘수행 걸기’ 등으로 각기 걷는 목적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용어가 내포한 의미와 목적을 반영한 걸기 프로그램의 이름짓기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景德傳燈錄』
- 『高僧法顯傳』
- 『觀察諸法行經』
- 『廣清涼傳』
- 『南海寄歸內法傳』
- 『大方廣佛華嚴經』
- 『大方等大集經賢護分』
- 『大法炬陀羅尼經』
- 『大寶積經』
- 『大比丘三千威儀』
- 『大乘寶雲經』
- 『大乘本生心地觀經』
- 『道行般若經』
- 『東師列傳』
- 『東師列傳』
- 『妙法蓮華經』
- 『彌沙塞部和醯五分律』
- 『方等三昧行法』
- 『白雲和尚語錄』
- 『佛本行集經』
- 『雪潭集』
- 『續高僧傳』
- 『受戒儀』
- 『阿毘達磨大毘婆沙論』
- 『長阿含經』
- 『增壹阿含經』
-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
- 『解脫道論』
- 『虛靜集』

Dīghanikāya, PTS.

Vinaya Pitakam, PTS.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19), 『불교문화』, 서울: 조계종출판사.

김미선(2014), 「佛家 禪僧 萬行詩 考察」, 『동방한문학』 59, 동방한문학회.

김선근(2013),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실행」, 『한국불교학』 67, 한국불교학회.

<불교신문>(2020. 10. 25),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천리길] 상월결사, 무엇을 말하는가」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4>).

<현대불교>(2020. 11. 28), 「상월결사, 본말사 걸기순례로 이어지다」(<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95>).

<법보신문>(2020. 09. 14), 「서울 봉은사, 상월선원 정신 이어 사부대중 걷기 정진」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92>)



■ Abstract

## A Text Survey of Words Related to “Walking” in Buddhist Literature

Han, Su Jin

In this study, words related to walking were researched to analyze their frequency of use and meaning through the archive database system of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脩大藏經 and Korean Buddhist Literature 韓國佛教全書.

The frequency of use of the terms, *haengdo*行道 (5,560), *yuhaeng*遊行 (3,139), *kyonhaeng*經行 (2,843), *manhaeng*萬行 (2,474), *xingjiao*行脚 (611), *unsui*雲水 (445), *shunrae*巡禮 (80), *p’ohaeng*布行 (36) was the highest in that order. *Haengdo*·*manhaeng*·*unsui*·*p’ohaeng* were mostly used to seeking *dharma* in Korean Buddhist books. The word *haengdo*, in which a practitioner walks around by chanting *dhāraṇī*, was one of the concentration practices in the Chinese Tiantai Order. *Xingjiao* was a kind of walking to search for a Buddhist priest of high virtue. *Yuhaeng* and *kyonhaeng* showed high frequency in Vinaya and Agama sutras. The term *shunrae* was used when a practitioner went to visit the stupa, bodhisatva, or a prelate. In Chinese text, the holy mountains were places for pilgrimage.

This study showed that the act of walking in Buddhism could be defined as walking as a method of practice for the purpose of the dissemination and completion of enlightenment through composition,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moving through space.

Keywords ● walking pilgrimage, wandering, walking up and down, Buddhist culture, Buddhist literature text survey

■ 논문투고일 : 2021. 5. 17 ■ 심사완료일 : 2021. 6. 13 ■ 게재확정일 : 2021. 6. 15